

Part 1. 시

2019학년도 6월 4p
1 ① 2 ③ 3 ② 4 ⑤ 5 ④

난이도 중 ●●○

①	②	③	④	⑤
81%	5%	5%	6%	3%

1. (가) ~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①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 지어 주제 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보여 줌으로써 희망적인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 ③ ~~역사적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참여의식을 표방하고 있다.~~
- ④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특정한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교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을 이끌어 내고 있다.~~

CODE : 세계의 구성

① (가)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 지어 주제 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 남북 분단의 현실과, ‘휴전선’이라는 공간을 연결 지어, 우리 민족이 겪는 비극과 그 비극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CODE : 세계의 구성

(나)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 지어 주제 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 진정한 소리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한 소리꾼의 삶과 ‘생명력 넘치는 우포늪’이라는 공간을 연결 지어, 그의 삶과 우포늪이 지니는 가치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CODE : 세계의 구성

(다)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 지어 주제 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 세속적 삶에 물든 글쓴이와 ‘바위’로 대표되는 자연 공간을 연결 지어 바위처럼 살고 싶은 글쓴이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CODE : 화자의 추구미

② (가)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보여 줌으로써 희망적인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 화자는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세계를 보여주는 않는다. 또한 미래가 희망적일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지 않다.

CODE : 화자의 추구미

(나)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보여 줌으로써 희망적인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에 대한 내용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CODE : 화자의 추구미

(다)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보여 줌으로써 희망적인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에 대한 내용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CODE : 화자의 추구미

③ (가) ~~역사적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참여의식을 표방하고 있다.~~

↳ 남북 분단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분단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

CODE : 화자의 추구미

(나) ~~역사적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참여의식을 표방하고 있다.~~

↳ 역사적 상황을 직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참여의식도 없다.

CODE : 화자의 추구미

(다) ~~역사적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참여의식을 표방하고 있다.~~

↳ 역사적 상황을 직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참여의식도 없다.

CODE : 세계의 구성

④ (가)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어휘 보강〉 사물 ⊃ 자연물, 인물

↳ 자연과 인간은 서로 대비되는 존재로만 나타나있지, 자연이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아니다. 또한, 자연에 대해 예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CODE : 세계의 구성

(나)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약새(자연) = 소리꾼(인간)’이므로,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없다. 다만, 우포늪의 생명력을 예찬하고 있다.

CODE : 세계의 구성

(다)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오심암)은 분명히 자연이 흘려놓은 예술의 극치다.

↳ 오심암을 예찬하고 있다.

(6문단) 잠깐 내 자신을 굽어보니 허영계 먼지 낀 의복, 그 밑에 숨은 먼지 낀 내 몸뚱어리, 그리고 또 그 속에 엮드린 먼지 낀 내 마음, 나는 그 뒷기 모르는 순결한 자연 속에 쓰레기처럼 동떨어진 내 몸의 더러움을 새삼스럽게 부끄러워하였다.

↳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며 자신을 반성할 수 있으므로,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CODE : 세계의 구성

⑤ (가) 특정한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교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을 이끌어 내고 있다.

〈어휘 보강〉 직접 경험 : 내가 경험함

⇔ 간접 경험 : 남이 경험한 것을 전해 들음

〈설명 보강〉 특정한 장소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을 말하기 위해선 화자가 실제로 그 장소에 있어야 한다. 단지 시선이 특정한 장소를 향한다고 해서 특정한 장소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 특정한 장소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이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인간의 교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도 없다.

CODE : 세계의 구성

(나) 특정한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교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을 이끌어 내고 있다.

↳ 우포늪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인간의 교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은 나타나지 않는다.

CODE : 세계의 구성

(다) 특정한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교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을 이끌어 내고 있다.

↳ 오심암에서의 직접적인 경험 바탕으로 되어 있다. 이때, 겸손한 자연에 비해, 교만한 인간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난이도 중 ●●○

①	②	③	④	⑤
4%	9%	79%	5%	4%

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설의적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소재의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시적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CODE : 시상 제시 방법

① (가)는 설의적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쓰는가’, ‘~ 있었던가’, ‘~뿐인가’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한다. 이로써 남북 분단의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CODE : 시상 제시 방법

② (나)는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소재의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 ‘한 대목 절창(청각)’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시각)’이라 하였다. 이는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소리꾼의 소리를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이다.

〈설명 보강〉 공감각적 심상은 판단하는 게 어려우니까 최대한 판단을 미루는 게 좋다.

CODE : 세계의 구성

③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어휘 보강〉 시간의 흐름은 ‘과거→현재→미래’ 순으로 이어져야 한다.

↳ 위기감이 감도는 휴전선의 ‘현재’ 상태를 중심으로 ‘과거’의 역사,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비극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과거→미래’로 흘러간다.

<Q&A>

Q. 그럼 과거 회상은 맞나요?

A. 과거 회상은 내가 직접 ‘경험해본’ 세계를 떠올려야 한다. 단지 책에서 봤던 ‘역사적인’ 얘기를 꺼내면 과거 회상이 되지 못한다.

CODE : 세계의 구성

(나)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화자가 ‘떠올린’ 소리꾼의 삶과 우포늪의 모습이 연관되어 형상화되었을 뿐,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지 않다.

CODE : 시상 제시 방법

④ (가)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산과 산이 (중략) 쓰는가’라는 동일한 시구가 반복되고 있다. 이를 통해 분단 극복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CODE : 시상 제시 방법

(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한 소리꾼의 삶을 통해 우포늪에서 창조된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CODE : 화자와 대상 구분하기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시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가)에서는 ‘꽃’, ‘화산’, ‘바람’이라는 자연물을 보면서, 우리 민족이 겪는 분단의 아픔과 공포를 투영하고 드러내고 있다.

<설명 보강> 자연물을 사용하기만 하면, 당연하게도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시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CODE : 화자와 대상 구분하기

(나)는 모두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시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우포늪 왁새’이라는 자연물을 보면서, 진정한 소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소리꾼을 떠올리고 있다.

<설명 보강> 다시 말하지만 우포늪 왁새 소리를 듣고 너무 감동받아서 이를 소리꾼에 비유한 것이다. 소리꾼을 보고 우포늪 왁새를 떠올린 것이 아니다.

난이도 중 ●●○

①	②	③	④	⑤
5%	74%	7%	6%	9%

3. (가)와 (다)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의 ‘천둥 같은 화산’은 신뢰를 잃은 상황이 초래한 불안한 현실을, (다)의 ‘검은 절경’은 **아름다움을 잃은 풍경**에서 느껴지는 **암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의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하나로 이어진 세계를, (다)의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는 흠결 없는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

③ (가)의 끊어진 ‘정맥’은 **‘유혈’을 이겨낸 삶의 의지**를, (다)의 엄습하는 ‘찬기’는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절망감**을 환기하고 있다.

④ (가)의 ‘징그러운 바람’은 미래에 닥칠지 모를 모진 상황을, (다)의 ‘미친 바람’은 **삶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를 상징하고 있다.

⑤ (가)의 ‘꽃’은 죄 없이 ‘요런 자세’로 삶에 순응하는 존재를, (다)의 ‘바위’는 지나온 과거를 ‘망각’하며 **삶을 획의하는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

CODE : 화자와 대상의 거리감

① (가)의 ‘천둥 같은 화산’은 신뢰를 잃은 상황이 초래한 불안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천둥 같은 화산’은 신뢰를 잃은 상황으로 인해 초래된 전쟁의 참혹한 상황을 의미한다.

CODE : 화자와 대상의 거리감

(다)의 ‘검은 절경’은 **아름다움을 잃은 풍경**에서 느껴지는 **암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3문단) 길은 단풍 빛에 붉게 누렇게 물든 **검은 절경**의 성장(盛裝), 그것을 선을 두른 동해보다도 더 푸른 하늘빛, 천사가 흘러고 간 형겁인듯 봉우리 위에 가볍게 비긴 백옥보다도 흰 엷은 구름 조각.

(4문단) **이것은 분명히 자연이 흘려놓은 예술의 극치다.**

↳ ‘검은 절경’은 붉게 누렇게 물든 단풍 빛과 조화를 이루는 오십암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다. 아름다움을 잃은 것이 아니며, 암울한 심정도 아니다.

CODE : 화자와 대상 구분하기

② (가)의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하나로 이어진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 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가.

↳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왕래할 수 없도록 땅을 나눈 ‘휴전선’과 달리,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끝끝내 하나인’ 세계를 의미한다.

CODE : 세계의 구성

(다)의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는 흠결 없는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

(6문단) 둘러보건대 이 골짜기에는 일찍이 먼지를 품은 미친 바람과 같은 것은 지나가 본 일이 아주 없었나 보아서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 티끌을 품은 듯한 아무것도 없다.**

↳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는 티끌을 품은 듯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설명 보강〉 ‘흠결 = 티끌’이다.

CODE : 자아의 전환

③ (가)의 끊어진 ‘정맥’은 ‘유혈’을 이겨낸 **삶의 의지**를 환기하고 있다.

〈어휘 보강〉 A를 환기한다 = A가 나타난다.

모든 유혈(流血)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서 있지 못할 광장.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야위어 가는 이야기뿐인가.

↳ 끊어진 ‘정맥’은 ‘유혈’은 지나갔지만, 그 상태가 그대로 이어진 상황이다.

CODE : 자아의 전환

(다)의 엄습하는 ‘찬기’는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절망감**을 환기하고 있다.

(7문단) 차디찬 바위 위에 신발을 벗고 모자를 던지고 외투를 벗어 팽개치고 반듯이 누워서 눈을 감으니 인생도 예술도 다 어디로 사라지고 오직 **끝없는 망각이 내 마음을 아니 우주를 채우며 온다. 그러나** 몸을 식히며 스며드는 찬기는 어느새 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들의 위치를 깨닫게 한다. 우리는 채 씻기지 않은 마음을 거두어 가지고 **잠시나마 정을 들인 오심암을 두 번 세 번 돌아다보면서** 간 길을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였다

↳ ‘찬기’는 첫째, 끝없는 망각이 우주를 채웠던 글쓴이에게 현실

감각을 일깨워주는 기능을 한다. 둘째, 현실적으로 집으로 돌아갈 때임을 일깨워준다. 결과적으로는 정들인 오심암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일깨워준 것이다. 하지만 이때의 정서가 ‘절망감’보다는, ‘아쉬움’ 정도라 할 수 있다.

〈설명 보강〉 비슷한 감정에 헛갈리지 말자. 절망감은 세상이 무너졌을때나 느껴야 하는 감정이다. 10만km 아픈데, 70만km 아프다고 오버 액션하면 안된다.

CODE : 화자와 대상의 거리감

④ (가)의 ‘징그러운 바람’은 미래에 닥칠지 모를 모진 상황을 상징하고 있다.

〈어휘 보강〉 A가 B를 상징한다 = A대신 B를 넣어도 말이 된다.

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이여.

↳ ‘징그러운 바람’ 대신에, ‘미래에 닥칠지 모를 모진 상황’을 대입해봐도, 충분히 말이 된다.

CODE : 화자와 대상의 거리감

(다)의 ‘미친 바람’은 **삶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를 상징하고 있다.

(6문단) 둘러보건대 이 골짜기에는 일찍이 먼지를 품은 미친 바람과 같은 것은 지나가 본 일이 아주 없었나 보아서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 티끌을 품은 듯한 아무것도 없다.

↳ ‘미친 바람’은 ‘티끌을 품은 듯한 아무것도 없다’와 대비된다. 먼지를 품고 있는 부정적인 존재를 의미한다.

CODE : 화자와 대상의 거리감

⑤ (가)의 ‘꽃’은 **죄 없이 ‘요런 자세’로 삶에 순응하는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 (가)의 ‘요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꽃’을 ‘쓰겠나’라는 말을 통해, ‘꽃’은 부정적 현실에 순응하는 존재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설명 보강〉 ‘쓰겠나’는 설의적 표현으로써, ‘쓸 수 없다(안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CODE : 화자와 대상의 거리감

(다)의 ‘바위’는 지나온 과거를 ‘망각’하며 **삶을 획의하는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

(7문단) 차디찬 바위 위에 신발을 벗고 모자를 던지고 외투를 벗어 팽개치고 반듯이 누워서 눈을 감으니 인생도 예술도 다 어디로 사라지고 오직 끝없는 **망각**이 내 마음을 아니 우주를 채우며 온다. 그러나 **몸을 식히며 스며드는 찬기는 어느새 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들의 위치를 깨닫게 한다.**

↳ ‘바위’는 지나온 과거인 세속적 삶을 ‘잠시나마’ 망각하게 한다. 이내 곧 ‘찬기’로 인해 세속적 삶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글쓴이가 삶을 ‘회의’하는 것까지는 아니다.

<어휘 보강> 삶을 회의한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의 삶을 부정하는데 까지 도달했다는 의미이다.

<설명 보강> 이 사람은 잠시 과거의 기억을 내려놓은 것이지, 과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비유를 하자면, 휴게실에 잠시 쉬러 간 사람보고, 자신의 과거의 삶을 부정하고 있다고 하는 셈이다.

난이도 최상 ●●●

①	②	③	④	⑤
4%	5%	13%	35%	43%

4. <보기>를 참고하여 [A] ~ [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화자는 **악새 울음소리와 우포늪의 풍경**을 연결 지어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 ② [B]: **득음의 경지를 찾아** 떠돌았던 소리꾼의 얼굴에 묻어나는 **삶의 비애**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C]: **소리꾼이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우포늪에서 찾아낸**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D]: **화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를 우포늪 일대의 현실적 공간과 결부하고 있다.
- ⑤ [E]: **날아가는 악새와 완창을 한 소리꾼을 대비하여** 자연과 인간이 통합된 예술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보 기>

이 시의 화자는 ‘우포늪’에서 악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던 한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화자는 악새 울음소리에서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이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함으로써, 우포늪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형상화한 것이다.

<보기 분석>

1. 화자는 ‘우포늪’에 직접 갔고, 거기서 악새 울음소리를 들었다.
2. 악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소리꾼’을 상상한다.
3. 화자가 떠올린 ‘소리꾼’은 힘들었겠지만 결국 절창을 완성한 사람이다.
4. ‘우포늪’의 생명력 덕분에 ‘소리꾼’이 완성한 것이라 생각한다.
5. 이로써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 속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CODE : 세계의 구성

① [A] : 화자는 왁새 울음소리와 우포늪의 풍경을 연결 지어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중략)
오늘은, 왁새* 울음 되어 우항산 솔밭을 다 적시고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영 꽃불 질러 놓는다

↳ 화자는 왁새 울음소리가 퍼지는 눈부신 우포늪의 모습을 보며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던 한 소리꾼을 연상하고 있다.

<Q&A>
 Q. '소리꾼'이 '왁새'가 된 것이 아닌가요?
 A. 그래서, <보기>를 최우선적으로 봐야한다.

CODE : 세계의 구성

② [B] : 득음의 경지를 찾아 떠돌았던 소리꾼의 얼굴에 묻어나는 삶의 비애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툼툼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엉켜 수염을 흔들곤 했다

↳ 화자는 득음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 떠돌아다녔던 소리꾼의 삶의 비애를 '슬픔'이라는 시구를 통해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CODE : 세계의 구성

③ [C] : 소리꾼이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우포늪에서 찾아낸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 화자는 소리꾼이 평생 찾아 헤맸던 절창이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다는 것을 설의적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CODE : 세계의 구성

④ [D] : 화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를 우포늪 일대의 현실적 공간과 결부하고 있다.

소목장재 토평마을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저 왁새들

↳ 화자는 왁새들이 '동편제'를 넘어가는 상상의 장면을, '소목장재 토평마을'이라는 현실적 공간과 결부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CODE : 세계의 구성

⑤ [E] : 날아가는 왁새와 완창을 한 소리꾼을 대비하여 자연과 인간이 통합된 예술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화자는 하늘을 선회하는 왁새를 바라보며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끝낸 소리꾼과 왁새를 '동일시'하고 있다. 또한, 문학의 본질은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다. '감정'과 '생각'에 있다.

난이도 중 ●●○

①	②	③	④	⑤
5%	20%	12%	60%	3%

5.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다)를 감상한 내용이다. ㉠ ~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 수필은 글쓴이의 성찰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반성적이고, 깨달음을 전한다는 점에서 교훈적이며, 인생과 사회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글쓴이의 발상과 통찰은 제재에서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 내고, 글쓴이의 문체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활용되지요. 그러면 이 작품에 드러난 수필의 특징을 확인해 봅시다.

<보기 분석>

수필에 대한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학생 1 : 가을의 풍경을 효과적으로 그려 내기 위해 감각적인 문체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학생 2 : '예술의 극치'와 '장하지도 아니한' 예술을 대비하는 데에서, 인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엿볼 수 있어요. ... ㉡

학생 3 : '오심암'의 경치에서 '겸손한 자연', '순결한 자연'을 이끌어 내는 데에서, 대상의 새로운 의미에 대한 통찰을 엿볼 수 있어요. ㉢

학생 4 :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고 한다는 점에서, 사색을 통해 교훈을 얻는 수필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

학생 5 : '먼지 낀 의복'을 보고 '몸뚱어리'와 '마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떠올린 데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

- ① ㉠ ② ㉡ ③ ㉢ ④ ㉣ ⑤ ㉤

CODE : 화자와 대상의 거리감

① 학생 1 : 가을의 풍경을 효과적으로 그려 내기 위해 감각적인 문체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휘 보강> 감각적인 문체 =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표현의 사용.

(3문단) 짙은 단풍 빛에 붉게 누렇게 물든 검은 절경의 성장(盛裝), 그것을 선을 두른 동해보다도 더 푸른 하늘빛, 천사가 흘러고 간 형질인 듯 봉우리 위에 가볍게 비낀 백옥보다도 흰 얇은 구름 조각.

↳ 글쓴이는 오심암 주변의 가을 풍경을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묘사하고 있다.

CODE : 화자와 대상의 유사성

② 학생 2 : '예술의 극치'와 '장하지도 아니한' 예술을 대비하는 데에서, 인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엿볼 수 있어요.

(4문단) 이것은 분명히 자연이 흘려 놓은 예술의 극치다.

↳ 자연은 예술의 극치다.

<여휘 보강> 극치 = 최고.

(5문단) 오직 사람만이 장하지도 아니한 그들의 예술을 천하에 뽐낼 기회만 엿보나 보다.

↳ 사람의 예술은 장하지도 않다. 자연과 대비되는 인간을 비판하고 있다.

CODE : 자아의 추구미

③ 학생 3 : '오심암'의 경치에서 '겸손한 자연', '순결한 자연'을 이끌어 내는 데에서, 대상의 새로운 의미에 대한 통찰을 엿볼 수 있어요.

(4문단) 그러나 겸손한 자연은 그의 귀한 예술이 홍진(紅塵)에 물든 것을 염려하여 그것을 이 깊은 산골짜기에 감추었던 것인가 보다.

(6문단) 나는 그 텃기 모르는 순결한 자연 속에 쓰레기처럼 동떨어진 내 몸의 더러움을 새삼스럽게 부끄러워하였다.

↳ 글쓴이는 '오심암'이 자신을 뽐내지 않고 겸손하며, 먼지 하나 없는 순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글쓴이는 자연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보다 나은 존재로 보고 있다.

CODE : 화자와 대상의 거리감

④ 학생 4 :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고 한다는 점에서, 사색을 통해 교훈을 얻는 수필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6문단) 둘러보건대 이 골짜기에는 일찍이 먼지를 품은 미친 바람과 같은 것은 지나가 본 일이 아주 없었나 보아서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 티끌을 품은 듯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잠깐 내 자신을 굽어보니 허영계 먼지 낀 의복, 그 밑에 숨은 먼지 낀 내 몸뚱어리, 그리고 또 그 속에 엮드린 먼지 낀 내 마음, 나는 그 텃기 모르는 순결한 자연 속에 쓰레기처럼 동떨어진 내 몸의 더러움을 새삼스럽게 부끄러워하였다.

↳ 글쓴이는 티끌 하나 없는 순결한 자연에 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은 먼지로 가득하다고 생각하며 부끄러워 한다. ‘티끌’은 세속의 더러움을 표현한 것이지, 자연이 얼마나 작은지 보여주기 위한 표현이 아니다.

CODE : 대상 간 동일성

⑤ 학생 5 : ‘먼지 낀 의복’을 보고 ‘몸뚱어리’와 ‘마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떠올린 데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6문단) 잠깐 내 자신을 굽어보니 허영게 **먼지 낀 의복**, 그 밑에 숨은 먼지낀 내 **몸뚱어리**, 그리고 또 그 속에 엮드린 먼지 낀 내 **마음**, 나는 그 뒷기 모르는 순결한 자연 속에 쓰레기처럼 동떨어진 내 몸의 더러움을 **새삼스럽게 부끄러워하였다**.

↳ 먼지 낀 의복과, 몸뚱어리, 마음에 대해 부끄러워 하고 있다. 반성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2026학년도 수능

10p

1 ⑤ 2 ① 3 ④ 4 ④ 5 ②

난이도 중 ●●○

①	②	③	④	⑤
2%	22%	4%	7%	65%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계절을 나타내는 소재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나)는 자연을 관조하며 시적 상황을 탈속적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
- ③ (다)는 글쓴이와 타인의 생각을 비교하며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④ (가)와 (다)는 모두, 연쇄적 표현을 통해 주체의 태도 변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모두, 가정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CODE : 세계의 구성

- ① (가)는 계절을 나타내는 소재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 ‘저녁’, ‘밤’, ‘새벽’ 등 시간적 표현들은 있지만, 계절을 나타내는 소재는 없다.

CODE : 화자와 대상의 거리감

- ② (나)는 자연을 관조하며 시적 상황을 탈속적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

〈어휘 보강〉

관조 : 감정 표현 없이, 묘사만 존재하는 것
탈속 : 세속에서 벗어남 OR 자연에서 삶.

사랑이 끝났기로서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그그리움 날로 자라면
주먹송이처럼 커 갈 땡감들.

↳ 감나무라는 자연을 관조하고 있지 않다. 적극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탈속적인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속세를 벗어나거나 자연에서 살겠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CODE : 화자와 대상의 유사성

- ③ (다)는 글쓴이와 타인의 생각을 비교하며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 글에 타인의 생각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 자신과 타인의 생각을 비교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세태에 대한 비판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부분도 없다.

CODE : 자아의 전환

- ④ (가)는 연쇄적 표현을 통해 주체의 태도 변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두고 온 것들이 빛나는 때가 있다
빛나는 때를 위해 소금을 뿌리며
우리는 이 저녁을 떠돌고 있는가

↳ 연쇄적 표현이 있다. 하지만 주체의 태도 변화 과정은 없다.

CODE : 자아의 전환

- (다)는 연쇄적 표현을 통해 주체의 태도 변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2문단) 소리는 한 가지가 아니니, 쓸모없는 소리가 있고 쓸모 있는 소리가 있다. 재채기 소리와 코 고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 가운데 쓸모없는 것이고, 탄식하고 답소하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 가운데 쓸모 있는 것이다. 쓸모 있는 소리에는 아름다운 소리와 추한 소리가 있다.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좋아하면 아름다운 소리이고, 미워하면 추한 소리이다. 아름다운 소리에는 실상이 있는 소리가 있고 흠여지는 소리가 있다. 입에서 나와 글로 쓰이지 못하면 흠여지는 소리가 되고, 입에서 나와 글로 쓰이면 실상이 있는 소리가 된다. 실상이 있는 소리에는 바른 것이 있고 샷된 것이 있다. 또 바른 것 같으면서 샷된 것도 있고, 혹 샷된 것 같으면서 바른 것도 있다. 사람의 소리로서 남에게 듣기 좋고, 남에게 듣기 좋아 글로 쓰이고, 글로 쓰였으면서 바름에 합당하다면 그것을 일컬어 좋은 소리라 한다.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

↳ 연쇄적 표현이 있다. 하지만 주체의 태도 변화 과정은 없다.

CODE : 시상 제시 방법

- ⑤ (나)는 가정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그리움 날로 자라면
주먹송이처럼 커 갈 땡감들.
(중략)
저 질푸른 감들, 마침내
형형 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세상은 어찌 환하지 않으랴.
하늘은 어찌 부시지 않으랴.

↳ 가정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CODE : 시상 제시 방법

(다)는 가정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1문단) 천지간에 만물이 소리를 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초목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체로 소리가 나지 않으나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난다. 그런즉 초목이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바람이다.
 금석은 때리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소리가 나지 않으나 물건이 **때리면** 소리가 난다. 그런즉 금석이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물건이다.

↳ 가정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난이도 중상 ●●●

①	②	③	④	⑤
56%	8%	13%	13%	9%

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① (가)에서 '사방을 둘러보'며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은, '밤을 지키는' 이의 눈을 피해 다니며 그리운 존재를 찾고 있는 암울한 현실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오던 길'을 '소금들'이 '환히 비춰 주'는 것은, '두고 온 것들'이 되살아날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는 점에서 빛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실현될 수 있음을 암시하겠군.
- ③ (나)에서 '반짝'이는 '잎새'와 '그늘'을 함께 지닌 '감나무' 아래에 '평상을 놓'는 것은, 밝음과 어두움이 어우러져 있는 자연에서 내면에 대한 성찰을 이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군.
- ④ (가)에서 '별 하나 눈뜨지 않'는 밤은 함께하던 이가 보이지 않는 상실의 상황을, (나)에서 '잠 뒤척'이는 '밤'은 마음이 감춰림 '익어' 가는 데 필요한 성숙의 시간을 의미하겠군.
- ⑤ (가)에서 '빛나는 때를 위해' '저녁'부터 '새벽'까지 길을 걷는 행동과, (나)에서 '질푸른 감들'이 '등불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은 모두, 밝음이 나타날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보 기>

(가)와 (나)는 밝음과 어두움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양상이 서로 다르다. (가)는 연대를 상실한 암울한 현실 상황을 어두운 밤으로 표상하고, 빛이 회복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다. 이러한 소망은 소금을 뿌리며 그리운 이를 찾아 다니는 행동으로 형상화된다. (나)는 자연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명암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성숙에 대한 성찰을 드러낸다. 이러한 성찰은 자연물과 내면을 동일시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양상을 그려 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보기 분석>

1. (가)는 연대를 상실한 암울한 현실 상황을 어두운 밤으로 표상하고, 빛이 회복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다.
2. 이러한 소망은 소금을 뿌리며 그리운 이를 찾아다니는 행동으로 형상화된다.
3. (나)는 자연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명암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성숙에 대한 성찰을 드러낸다.
4. 이러한 성찰은 자연물과 내면을 동일시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양상을 그려 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CODE : 대상 간 동일성

① (가)에서 ‘사방을 둘러보’며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은, ‘**밤을 지키는**’ **어의 눈을 피해 다니며** 그리운 존재를 찾고 있는 암울한 현실 상황을 보여 주는군.

사방을 둘러보아도

등불 하나 켜 든 이 보이지 않고
 등불 뒤에 속삭이며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는다

↳ ‘등불 하나 켜 든 이’와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는 의미상 유사한 존재이다. 화자는 이들을 모두 지향한다.

CODE : 세계의 구성

② (가)에서 ‘오던 길’을 ‘소금들’이 ‘환히 비춰 주’는 것은, ‘두고 온 것들’이 되살아날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는 점에서 빛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실현될 수 있음을 암시하겠군.

그래도 두고 온 것들은 빛나는가

빛을 뿜으면서 한 번은 되살아나는가
 우리가 뿌린 **소금들** 반짝반짝 **별빛이** 되어
오던 길 환히 비춰 주고 있으니

↳ 두고 온 것들이, 우리가 뿌린 소금들이 비춰주기 때문에 나중에는 빛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언젠가는 빛에 회복에 대한 소망이 실현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CODE : 세계의 구성

③ (나)에서 ‘반짝’이는 ‘잎새’와 ‘그늘’을 함께 지닌 ‘감나무’ 아래에 ‘평상을 놓’는 것은, 밝음과 어두움이 어우러져 있는 자연에서 내면에 대한 성찰을 이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군.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게

어찌 햇살뿐이라.
 (중략)
 감나무 **그늘에 평상을 놓고**
 그래 그래, 밤이면 잠 뒤척여

↳ 감나무는 ‘반짝’이는 ‘잎새’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두운 ‘그늘’도 가지고 있다. 이는 밝음과 어두움이 어우러져 있는 자연인 것이다. 화자는 이곳에서 성찰을 이어가고 있다.

CODE : 세계의 구성

④ (가)에서 ‘별 하나 눈뜨지 않’는 밤은 함께하던 이가 보이지 않는 상실의 상황을 의미하겠군.

사방을 둘러보아도

등불 하나 켜 든 이 보이지 않고
 등불 뒤에 속삭이며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는다
 (중략)

하늘 올려보아도

함께 어둠 지새던 별 하나 눈뜨지 않는다

↳ 사방을 둘러보아도 내 주변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늘을 올려보아도 ‘함께’ 지새던 별도 보이지 않는다. 이는 당연히 상실의 상황을 의미한다.

CODE : 세계의 구성

(나)에서 ‘잠 뒤척’이는 ‘밤’은 마음이 감처럼 ‘익어’ 가는 데 필요한 성숙의 시간을 의미하겠군.

그래 그래, 밤이면 잠 뒤척여

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 보고
 새벽이면 퍼뜩 깨어나
 계곡 물소리도 들어 보게.
그 기다림 날로 익으니
 서러움까지 익어선
 저 질푸른 감들, 마침내
 형형 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 밤에 잠을 뒤척이는 것은, 감이 익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기다리는 것이다. 화자는 감과 자신을 동일화하고 있으므로, ‘잠 뒤척’이는 ‘밤’은 감처럼 익어가는 데 필요한 성숙의 시간을 의미한다.

CODE : 대상 간 동일성

⑤ (가)에서 ‘빛나는 때를 위해’ ‘저녁’부터 ‘새벽’까지 길을 걷는 행동은 밝음이 나타날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빛나는 때를 위해 소금을 뿌리며

우리는 이 **저녁을 떠돌고 있는가**
 (중략)
 우리는 이 **새벽길 숨가쁘게 넘고 있는가**

↳ 우리는 빛나는 때를 위해 저녁에도 떠돌고 있고, 심지어 새벽 길도 걷고 있다.

CODE : 세계의 구성

(나)에서 '질푸른 감들'이 '등불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은 모두, 밝음이 나타날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저 질푸른 감들, 마침내
 형형 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세상은 어찌 환하지 않으랴.
 하늘은 어찌 부치지 않으랴.

↳ 질푸른 감들이 언젠가는 빨갱게 익으면서 등불을 밝힐 것이라고 본다.

난이도 중 ●●○

①	②	③	④	⑤
3%	18%	13%	61%	5%

3.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목메이게 부르짖'는 것과 ㉡을 찾고자 '숨가쁘게' 길을 넘는 것에는 모두, 대상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드러난다.
- ② ㉢ 중에는 쓸모는 있지만 남들이 듣고 미워하는 소리가 있는 한편, ㉣은 아니지만 남들이 듣고 좋아하는 소리도 있다.
- ③ ㉠이 잦아드는 것은 '다른 목소리의 끝'에 닿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이 흠어지는 것은 아름다운 소리가 글로써 실현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 ④ ㉠은 '잊혀진' 상태이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화자가 생각하는 대상이고, ㉣은 바른 것 같으면서도 **사뉘는 것일 수 있다고** 글쓴이가 생각하는 대상이다.
- ⑤ ㉡을 찾기 위해 화자는 미세한 소리에도 '칼날'을 '세우'듯이 민감하게 반응하려 하고, ㉢ 중에서 답소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탄식하는 소리도 글쓴이는 쓸모 있다고 여기고 있다.

CODE : 대상 간 동일성

① ㉠이 '목메이게 부르짖'는 것과 ㉡을 찾고자 '숨가쁘게' 길을 넘는 것에는 모두, 대상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드러난다.

잊혀진 목소리가 살아나는 때가 있다
 잊혀진 ㉠한 목소리 잊혀진 다른 목소리의 끝을 찾아
 목메이게 부르짖다 잦아드는 때가 있다
 잦아드는 ㉡외마디 소리를 찾아 칼날 세우고
 우리는 이 새벽길 숨가쁘게 넘고 있는가

↳ 어떤 ㉠이 잊혀진 다른 목소리를 계속 엄청나게 찾는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점점 잦아들어 결국 ㉡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을 찾기위해 엄청나게 숨가쁘게 넘고 있다. 따라서 둘다 간절한 마음이 드러난다.

CODE : 세계의 구성

② ㉢ 중에는 쓸모는 있지만 남들이 듣고 미워하는 소리가 있는 한편, ㉣은 아니지만 남들이 듣고 좋아하는 소리도 있다.

재채기 소리와 코 고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 가운데 쓸모없는 것이고**, 탄식하고 답소하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 가운데 쓸모 있는 것이다. 쓸모 있는 소리에는 아름다운 소리와 추한 소리가 있다.**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좋아하면 아름다운 소리이고, 미워하면 추한 소리이다. **아름다운 소리에는 실상이 있는 소리가 있고 흠어지는**

소리가 있다. 입에서 나와 글로 쓰이지 못하면 흩어지는 소리가 되고, 입에서 나와 글로 쓰이면 실상이 있는 소리가 된다. **실상이 있는 소리에는 바른 것이 있고 샅된 것이 있다. 또 바른 것 같으면서 샅된 것도 있고, 혹 샅된 것 같으면서 바른 것도 있다.** ㉠사람의 소리로서 남에게 듣기 좋고, 남에게 듣기 좋아 글로 쓰이고, 글로 쓰였으면서 바름에 합당하다면 그것을 일컬어 ㉡좋은 소리라 한다

↳ ㉠ 중에 아주 일부가 ㉡이 된다. ㉠ 중에는 쓸모는 있지만 남들이 미워하는 소리가 당연히 있다. ㉡은 아니지만 남들이 듣고 좋아하는 소리가 있다. 예를 들어 글로 쓰이지 않았지만 남에게 듣기 좋다면 ‘좋은 소리’는 아니지만 남들이 듣고 좋아하는 소리이다.

CODE : 세계의 구성

③ ㉠이 잦아드는 것은 ‘다른 목소리의 끝’에 닿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잊혀진 ㉠한 목소리 잊혀진 다른 목소리의 끝을 찾아 목메이게 부르짖다 잦아드는 때가 있다

↳ ‘한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의 끝’을 찾지만, 잦아드는 것은 ‘다른 목소리의 끝’에 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CODE : 세계의 구성

㉠이 흩어지는 것은 아름다운 소리가 글로써 실현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재채기 소리와 코 고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 가운데 쓸모없는 것이고**, 탄식하고 답소하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 가운데 쓸모 있는 것이다. 쓸모 있는 소리에는 아름다운 소리와 추한 소리가 있다.**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좋아하면 아름다운 소리이고, 미워하면 추한 소리이다. **아름다운 소리에는 실상이 있는 소리가 있고 흩어지는 소리가 있다.** 입에서 나와 글로 쓰이지 못하면 흩어지는 소리가 되고, 입에서 나와 글로 쓰이면 실상이 있는 소리가 된다. **실상이 있는 소리에는 바른 것이 있고 샅된 것이 있다. 또 바른 것 같으면서 샅된 것도 있고, 혹 샅된 것 같으면서 바른 것도 있다.** ㉠사람의 소리로서 남에게 듣기 좋고, 남에게 듣기 좋아 글로 쓰이고, 글로 쓰였으면서 바름에 합당하다면 그것을 일컬어 좋은 소리라 한다.

↳ ‘사람의 소리’가 흩어지는 것은, 입에서 나왔지만, 글로 쓰이지 못한 경우이다.

CODE : 세계의 구성

④ ㉠은 ‘잊혀진’ 상태이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화자가 생각하는 대상이고,

잊혀진 목소리가 살아나는 때가 있다

잊혀진 ㉠한 목소리 잊혀진 다른 목소리의 끝을 찾아 목메이게 부르짖다 잦아드는 때가 있다

↳ 잊혀진 목소리가 살아나는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CODE : 세계의 구성

㉡은 바른 것 같으면서도 **샅된 것일 수 있다**고 글쓴이가 생각하는 대상이다.

재채기 소리와 코 고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 가운데 쓸모없는 것이고**, 탄식하고 답소하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 가운데 쓸모 있는 것이다. 쓸모 있는 소리에는 아름다운 소리와 추한 소리가 있다.**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좋아하면 아름다운 소리이고, 미워하면 추한 소리이다. **아름다운 소리에는 실상이 있는 소리가 있고 흩어지는 소리가 있다.** 입에서 나와 글로 쓰이지 못하면 흩어지는 소리가 되고, 입에서 나와 글로 쓰이면 실상이 있는 소리가 된다. **실상이 있는 소리에는 바른 것이 있고 샅된 것이 있다. 또 바른 것 같으면서 샅된 것도 있고, 혹 샅된 것 같으면서 바른 것도 있다.** 사람의 소리로서 남에게 듣기 좋고, 남에게 듣기 좋아 글로 쓰이고, 글로 쓰였으면서 **바름에 합당하다면 그것을 일컬어 ㉡좋은 소리라 한다.**

〈여휘 보강〉 샅되다: 보기에 하는 행동이 바르지 못하고 나쁘다.

↳ ㉡은 바름에 합당한 경우다. 샅된 것이 아니다.

CODE : 세계의 구성

⑤ ㉠을 찾기 위해 화자는 미세한 소리에도 ‘칼날’을 ‘세우’듯이 민감하게 반응하려 하고,

찾아드는 ㉠외마디 소리를 찾아 칼날 세우고

↳ 화자는 ㉠을 찾기 위해 칼날을 세울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려 한다.

CODE : 세계의 구성

㉠ 중에서 답소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탄식하는 소리도 글쓴이는 쓸모 있다고 여기고 있다.

재채기 소리와 코 고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 가운데 쓸모없는 것이고**, 탄식하고 답소하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 가운데 쓸모 있는 것이다.**

↳ 탄식하고 답소하는 소리는 모두 사람의 소리 가운데 쓸모 있는 것이다.

난이도 중 ●●○

①	②	③	④	⑤
3%	5%	13%	74%	5%

4. ㉠ ~ ㉥를 중심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가 혼드는 것이 **감나무 잎새뿐**이라고 여기다가 ㉡를 보며 그 생각을 바로잡고 있다.
- ② 화자는 ㉡가 내는 소리와 ㉢의 움직임들 통해 감나무 열매가 **충분히** 익은 상태임을 짐작하고 있다.
→ **덜**
- ③ 화자는 ㉡와 ㉢가 **감나무에서 만났다가 한순간에 헤어지는** 것을 보며 자신의 사랑이 끝났음을 떠올리고 있다.
- ④ 화자는 감나무 열매가 자라는 과정에서 ㉡를 만나기도 하고 ㉢를 만나기도 하는 일이 의미하다고 여기고 있다.
- ⑤ 화자는 ㉡와 ㉢가 감나무를 떠난 후에 ㉡와 ㉢가 오는 것을 보며 **머지않아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CODE : 세계의 구성

① 화자는 ㉠가 혼드는 것이 **감나무 잎새뿐**이라고 여기다가 ㉡를 보며 그 생각을 바로잡고 있다.

감나무 잎새를 혼드는 게

어찌 ㉠바람뿐이라.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 게

어찌 햇살뿐이라.

아까는 ㉡오색딱따구리가

따다다닥 짝고 가더니

봐봐, 시방은 청설모가

쭈르르 타고 내려오네.

↳ 바람이 감나무 잎새 말고 다른 것을 혼든다는 말은 없다. 그리고 ㉡를 보며 그 생각을 바로 잡고 있지도 않다.

CODE : 세계의 구성

② 화자는 ㉡가 내는 소리와 ㉢의 움직임들 통해 감나무 열매가 **충분히** 익은 상태임을 짐작하고 있다.
→ **덜**

감나무 잎새를 혼드는 게

어찌 바람뿐이라.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 게

어찌 햇살뿐이라.

아까는 ㉡오색딱따구리가

따다다닥 짝고 가더니

봐봐, 시방은 ㉢청설모가

쭈르르 타고 내려오네.

사랑이 끝났기로서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그 그리움 날로 자라면

주먹송이처럼 커 갈 **땡감들.**

〈어휘 보강〉 땡감: 덜 익어서 뚱은 감.

↳ ㉡와 ㉢가 있는 지금은 땡감인 상태다. 따라서 감나무 열매가 아직 덜 익은 상태이다.

CODE : 세계의 구성

③ 화자는 ㉡와 ㉢가 **감나무에서 만났다가 한순간에 헤어지는** 것을 보며 자신의 사랑이 끝났음을 떠올리고 있다.

아까는 ㉡오색딱따구리가

따다다닥 짝고 가더니

봐봐, 시방은 ㉢청설모가

쭈르르 타고 내려오네.

↳ ㉡는 감나무와 만났다가 헤어지고, 그 다음에 ㉢가 감나무와 만났다가 헤어진 것이지, ㉡와 ㉢가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다.

CODE : 세계의 구성

④ 화자는 감나무 열매가 자라는 과정에서 ㉡를 만나기도 하고 ㉢를 만나기도 하는 일이 의미하다고 여기고 있다.

주먹송이처럼 커 갈 **땡감들.**

때론 머리 위로 ㉡**흰 구름**을 이고

때론 온종일 ㉢**장대비** 맞아 보게.

↳ 화자는 ‘땡감들’은 때론 머리 위로 ‘흰 구름’을 이고, 때론 온종일 ‘장대비’를 맞아야 한다고 본다.

CODE : 세계의 구성

⑤ 화자는 ㉡와 ㉢가 감나무를 떠난 후에 ㉡와 ㉢가 오는 것을 보며 **머지않아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까는 ㉡오색딱따구리가

따다다닥 짝고 가더니

봐 봐, 시방은 ㉠청설모가
 쪼르르 타고 내려오네.
 사랑이 끝났기로서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그그리움 날로 자라면
 주먹송이처럼 커 갈 땡감들.
 때론 머리 위로 ㉡흰구름 이고
 때론 온종일 ㉢장대비 맞아 보게.
 이별까지 나눈 마당에
 기다림은 웬 것이랴만

↳ 화자는 ㉠와 ㉢의 감나무에 대한 사랑은 언젠가는 끝나게 된다고 본다. 그런데 이후에 오는 것은 ㉡와 ㉢이지만, 이들은 새로운 사랑은 아니다. ‘기다림’이기 때문이다.

난이도 중 ●●○

①	②	③	④	⑤
4%	65%	11%	15%	5%

5.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만물’이 소리 나는 이치에서 시작하여 ‘사람’이 소리를 내는 이치를 밝히며, 소리를 화두로 삼아 문장에 대해 말하고 있군.
- ✓ ② ‘소리’가 지닌 **상반된 특성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좋은 소리’임을** 제시하여, 문장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바를 드러내고 있군.
- ③ 최립의 문장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에 가까움을 언급하며, 그의 문장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군.
- ④ 최립의 문장에 담긴 ‘뜻’이 도리에 합당함을 향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그가 학업에 정진할 것을 당부하고 있군.
- ⑤ 글로 드러난 최립의 소리가 크게 나는 것이 그의 ‘마음’과 ‘기’에서 비롯됨을 언급하여, 그의 문장이 뜻을 크게 드러내고 있음을 칭찬하고 있군.

<보 기>

(다)는 마음에서 기가 움직여 뜻이 소리로 나오는데 있어 도리에 합당해야 좋은 글[文]이라는 글쓴이의 문학을 바탕으로, 상대의 문장을 평가하며 칭찬과 당부를 전하고 있다.

<보기 분석>

- 1. 글쓴이는 마음에서 기가 움직여서 뜻이 소리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도리에 합당해야 좋은 글이라고 생각한다.
- 2.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문장을 평가하며 칭찬과 당부를 전하는 글이다.

CODE : 시상 제시 방법

① ‘만물’이 소리 나는 이치에서 시작하여 ‘사람’이 소리를 내는 이치를 밝히며, 소리를 화두로 삼아 문장에 대해 말하고 있군.

↳ 맨 처음에 만물이 소리나는 이치를 다루고 있고, 이어 사람이 내는 소리의 이치를 밝히며, 마지막에는 그 소리를 화두로 최립의 문장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CODE : 세계의 구성

② ‘소리’가 지닌 **상반된 특성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좋은 소리’임을** 제시하여, 문장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바를 드러내고 있군.

재채기 소리와 코 고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 가운데 쓸모없는 것이고**, 탄식하고 답소하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 가운데 쓸모 있는 것이다. 쓸모 있는 소리에는 아름다운 소리와 추한 소리가 있다.**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좋아하면 아름다운 소리이고, 미워하면 추한 소리이다. **아름다운 소리에는 실상이 있는 소리가 있고 흠어지는 소리가 있다.** 입에서 나와 글로 쓰이지 못하면 흠어지는 소리가 되고, 입에서 나와 글로 쓰이면 실상이 있는 소리가 된다. **실상이 있는 소리에는 바른 것이 있고 샛된 것이 있다. 또 바른 것 같으면서 샛된 것도 있고, 혹 샛된 것 같으면서 바른 것도 있다.** 사람의 소리로서 남에게 듣기 좋고, 남에게 듣기 좋아 글로 쓰이고, 글로 쓰였으면서 **바름에 합당하다면 그것을 일컬어 좋은 소리라 한다.**

↳ 사람의 소리로서 남에게 듣기 좋고, 남에게 듣기 좋아 글로 쓰이고, 글로 쓰였으면서 바름에 합당하다면 그것을 일컬어 ‘좋은 소리’이다. ‘소리’가 지닌 상반된 특성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좋은 소리’라는 내용은 없다.

CODE : 세계의 구성

③ **최립의 문장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에 가까움을 언급하며, 그의 문장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군.**

(2문단)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

↳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3문단) **최립은 좋은 소리를 내는 사람에 가깝다. 그의 문장이 비록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 뜻은 바름을 향한다.**

↳ 그런데 최립의 문장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인, 좋은 소리를 내는 사람에 가깝다.

CODE : 세계의 구성

④ **최립의 문장에 담긴 ‘뜻’이 도리에 합당함을 향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그가 학업에 정진할 것을 당부하고 있군.**

최립은 좋은 소리를 내는 사람에 가깝다. 그의 문장이 비록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 뜻은 바름을 향한다. 그러니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 최립의 뜻은 바름을 향하기 때문에, 학업만 게을리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한다

CODE : 세계의 구성

⑤ **글로 드러난 최립의 소리가 크게 나는 것이 그의 ‘마음’과 ‘기’에서 비롯됨을 언급하여, 그의 문장이 뜻을 크게 드러내고 있음을 칭찬하고 있군.**

최립은 **소리가 크니 그 본체가 큰 것을 알 만하다. 사람의 본체는 마음이니 그의 마음이 가히 크다고 하겠다.** (중략) **사람의 소리는 기가 크면 그 소리가 크게 나고 기가 작으면 그 소리가 작게 나니, 최립의 기는 가히 크다고 하겠다.**

↳ 최립의 소리가 큰 것은 마음이 큰 것이다. 또한 이는 기가 크기 때문이다. 이를 들어 최립의 문장을 칭찬하고 있다.

